연기 영상 지정 장면

지정 장면 1)

S#3 (미도의 방, 미도 Nar.)

다음 날 아침, 방금 씻고 나온 미도의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. 드라이기를 들어 머리를 말리기 시작하는 미도. 미도는 머리를 말리며 거울을 빤히 쳐다본다. 드라이기로 말린 머리가 부스스하다. 거울을 보며 부스스한 머리를 한 번 쓸어 넘기더니 앞에 놓여 있는 무선 고데기로 시선을 돌리는 미도. 언니의 눈치를 보면서 손을 뻗어 고데기를 집으려는데,

태주: (주방에서) 미도야~

태주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미도가 급히 손을 내린다.

태주: 전기 충격기 만지면 안 되는 거 알지?

미도: (문밖을 흘겨보며) 어 나도 알아.

짧게 대답한 뒤 미도는 휙 뒤돌아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빠르게 말한다.

미도: (Nar.) 이것은 평범한 고데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호신용 전기충격기입니다. 사용하면 상대를 순식간에 고온 건조 시켜서 가루로 만들어버린…(대요)

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면이 전환되어 태주가 소금통을 쏟는다.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미도.

미도: (주방 바깥을 내다보며) 괜찮아?

태주: 어 괜찮아.

미도: (바로 말투를 다시 바꿔 카메라를 바라보면서)(Nar.) 아무튼 너무 위험해서 저는 못 만지고 언니만 쓸 수 있습니다.

지정 장면 2)

S#10 (거실) - [S#10 中 일부]

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미도의 손을 꼭 잡고 설명해주는 태주의 모습.

태주: (너무나도 큰 슬픔에 체념한 듯한 말투로)…그래, 어제까지 너랑 있던 네 언니는 내가 죽였어. 근데 어차피 그 애도 나였잖아. 살고 있는 차원이 달랐을 뿐이야. 난 그대로 네 언니야, 미도야. 이제 이해가 돼?

곧이어 미도가 완전히 실신해버린다.

태주: (작게 흐느끼며) 미안해. 계속 다른 사람들 납치하면 경찰 올까봐 무서워서 그랬어, 그래도 널 쓰면 안 됐는데……. 정말 미안해…….

미도의 게슴츠레 떠있던 눈이 천천히 감긴다.

태주: (자신의 실수로 미도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에 자책하고 마른세수하며 허망하게) 어떡해……

그때 태주의 어깨 너머 익숙한 실루엣이 보인다. 잔뜩 울분에 찬 듯 씩씩거리는 미도가 한 손에 리모컨을 쥔 채 서 있다. 태주는 일순간 얼굴에 화색이 돌며 달려가 그를 껴안는다.

태주: (얼굴에 활짝 미소가 번지며 반갑게) 미도야! 어떻게 왔어? 네가 차원 이동기 만들었어?

미도: (지친 듯이 조금은 적대적인 말투로) …소파 밑에 있었어. 전에 언니가 잃어버렸던 거.

태주: 그걸 너 혼자 조작해서 온 거야?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? 너 많이 똑똑해졌다! (다정한 듯 통제적으로) 봐봐, 여기 차원에 원래 있던 나도 죽었고 방금 너도 죽었거든.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여기서 살면 돼.

미도: (미도의 시체를 보고 어이없다는 듯 허망하게 웃다가 곧 싸늘한 말투로) 왜 나 버리고 갔어?

태주: (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잠시 미도의 눈을 피하다가 다시 다정하게) 버렸다고? 그게 무슨 소리야. 네가 이거 찾아서 여기까지 오는 걸 내가 예상 못 했겠어? 다 설계해두고서 했던 일이지.

미도: (점점 원망의 감정이 격앙되면서) 거짓말하지 마. 그럼 방금 나 보고 왜 놀랐는데. 리모컨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나 버리고 혼자만 도망간 거잖아. 애초에 언니한테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야! 그리고 그 실험들... 언니가 나한테 시킨 그 실험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다 정상 아니었어. 인류의 구원은 무슨…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? 그리고 그거에 난 왜 끌어 들였어!! …언니 진짜 대체 뭐야…? 그동안 나한테 왜 그랬어!? (울음이 젖은 목소리로)

태주: (어이없다는 듯이 싸늘하게) 그래서 뭐 나보고 어떡하라고? …아니, 넌 어떡하려고? 그렇게 짜증내서 뭐, 내가 싫어? 그럼 네가 뭐 어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. 가출이라도 할 거야? 그럼

해 보든가.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? 너 혼자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. 내가 거둬주기 전에 너 길바닥에서 거지처럼 살던 거 기억 못하니? 내가 계속 말했었잖아. 지금까지 내가 공짜로 밥 해주고 재워줬으니까 지금 네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지, 너같이 무식한 새끼가 나 싫다고 나가봤자 다시 거지꼴밖에 더 되겠냐구. 살려줘서 고맙다고, 앞으로도 제발 잘 부탁한다고 해도 모자를 판에 나한테 정상이 아니네 뭐네… 진짜 생각없고 배은망덕하다 너. 나 아니었으면 널 누가 거둬서 키웠을까 진짜. …뭐해. 내쫓아버리기 전에 얼른 잘못했다고 말해.